

“미국, 글로벌 금융 진출 ‘교두보’… 전략·리스크관리 중요”

인터뷰

김우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미국 자본시장은 자금이 가장 많이 모이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가장 먼저 시험되는 시장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거점으로 뉴욕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영업망을 넓히는 차원을 넘어 자금 조달과 투자, 금융 혁신의 흐름을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 한복판에서 미국 금융시장과 한국 금융회사의 움직임을 동시에 들여다보는 곳이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다.

김우현 뉴욕사무소장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MBA를 받았다. 아시아개발은행과 금융감독원 국제협력국, 거시건전성감독국 등을 거쳐 현재 뉴욕사무소장을 맡고 있다. 국제 금융과 감독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김 소장은 뉴욕의 의미를 단순한 해외 지점 이상의 공간으로 표현했다. 그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금융시장은 전통적 금융상품 거래의 유통성뿐 아니라 새로운 투자기회와 투자기법 측면에서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회사를 지향하는 국내 금융회사에게 미국은 전략적 교두보이자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 진출 늘지만… 비슷한 사업모델은 과제

최근 국내 금융회사의 미국 진출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투자자의 해외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중개업은 물론 자산운용과 투자은행(IB), 현지 자금조달 기능까지 사업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다만 김 소장은 국내 금융사들의 미국 사업 모델이 아직은 서로 닮아 있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다. 그는 “신규 진입 회사들의 다수는 한국에서의 주식 주문을 중개하는 브로커리지에 집중하고 있고 일부 회사는 청산 전문 증권사를 인수하는 등 진출 영역이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글로벌 금융회사와 경쟁하려면 외형 확대뿐 아니라 특화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지에서 체감되는 금융회사 간 격차도 적지 않다. 미래에셋증권처럼 단순 브로커리지를 넘어 청산과 유가증권 매매, 대차



김우현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허정윤 기자

“

미국, 자금 가장 많이 모이는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회사 도약 위한 주요거점

국내 금융사 미국 진출 꾸준히 늘어
브로커리지에 편중… 차별화 필요해
단순 진출 넘어 ‘특화전략’ 갖춰야

뉴욕사무소, 금융변화 읽는 ‘관측소’
생태계 바꿀 혁신 흐름 국내에 공유

단순 법규 준수 넘어 리스크체계 강조
현지 감독당국 기대 수준에 맞춰야

규제·제도·관행 등 국내시장과 달라
투자특성 파악, 선제적 위험 대비해야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수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상당수 회사는 여전히 한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거래를 뒷받침하는 기능에 무게가 실려 있다. 김 소장은 “미국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지점들이 대부분 수익을 내고는 있지만 규모와 업무 범위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초기에는 시장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랜 기간 영업해온 만큼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IB 딜을 확대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다는 시각도 내놨다.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시설 등 미국 내 프로젝트 투자와 대출 사업은 거래 발굴 능력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딜이 나왔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어야 하고 규모가 작으면 투자 한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국내 금융사들의 사업 구조를 보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단계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국내 금융회사들의 미국 사업이 확대되면서 현지 금융 환경과 감독 체계를 이해하는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다.

◆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 읽는 금감원 뉴욕사무소

김 소장은 뉴욕사무소의 역할을 “금융 변화의 전조를 읽는 관측소”에 가깝다고 표현했다. 그는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는 세계 최대 금융시장에 위치한 만큼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 징후를 빠르게 포착하고 금융 생태계를 바꿀 혁신 흐름을 국내에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뉴욕사무소는 미국 금융시장 이슈와 금융 제도 변화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정보를 선별해 본원의 감독 업무에 전달한다. 동시에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의 리스크 동향을 점검하고 FRB 뉴욕지부와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 현지 감독당국과 교류·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뉴욕에 진출하는 배경 역시 단순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기본적으로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지만 뉴욕은 외화 자금 조달의 창구 역할도 한다”며 “금

용이 가장 발달한 시장이 미국이고 새로운 금융 흐름도 이곳에서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와 접점을 유지하려는 의미도 크다”고 덧붙였다.

◆ “미국, 국내시장과 달라… 규정만 지키면 되는 시장 아니다”

김 소장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규제 리스크다. 그는 “업권별 특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영업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규제 리스크와 운영 리스크”라고 짚었다. 트럼프 정부 이후 금융 규제 완화 흐름이 일부 나타났지만 미국 감독기관의 권한과 재량 범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과거에는 금융보안이나 자금 세탁방지 같은 법규 위반 여부가 검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면 최근에는 감독당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의 감독 문화는 한국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규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만 미국은 검사역이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을 가법계 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로 미국에 진출하는 금융회사들은 이런 감독 환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뉴욕사무소도 국내 금융회사들이 현지 감독 방향을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해외 투자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소장은 “개인이든 금융회사든 해외투자는 규제와 제도, 시장 관행이 국내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며 “투자상품이나 투자 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위험에 대한 대비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경험과 노하우도 꾸준히 쌓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현지 경쟁력을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미국 뉴욕 맨해튼 금융·증권가 야경.